

4·27 재보선 D-7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내가 책임자”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남은 선거일까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각 후보들은 너도 나도 자신들이 지역발전의 책임자임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의 각종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 순천 국회의원 후보 공약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표심을 다지는 한편 주요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속마음을 파고 들고 있다.

각 후보들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2013년 순천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국비 확보와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와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통합 등 지역민들에게 절실한 현안도 각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됐다. 광양만권 통합 원칙에는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면서도 접근 방법에는 신중함을 보였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대지만,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들은 차별성이 부족하고 엇비슷했다.

순천시가 도농(都農)복합지역인 만큼 도시와 농촌 유권자를 상대로 한 다양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일부 공약들은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권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의 공약은 진보정당 후보답게 노동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무상교육 법제화, 전·월세 상한제, 최저임금 현실화·비정규직 문제 해결, 최저임금 현실화·반값 등록금제 실현 등의 진보적인 복지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정책 공약도 진보적이다. 추곡수매제 부활과 농산물 최저가격지원제, 농업용 1톤 트럭 인정 면세유 확대 등이 농민을 위한 농촌 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여수산업단지과 광양제철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광양만권에 지역 맞춤형 산업재해 의료시설과 종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순천대의 대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허상만 후보는 10대 음식재료를 정부가 구매해서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10대 작물 수매제도 실시'라는 특이한 공약을 내놓았다. 식량자급률 상승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일부 공약들은 재원 확보 방안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않다.

허 후보는 또 순천정원박람회 부지를 국제적 테마파크로 조성할 것이라며 공약했다. 남해안 관광벨트 중앙

■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이름(나이)	김선동(43)	허상만(67)	조순용(59)	허신행(68)	박상철(51)	구희승(48)	김경재(68)
기호	5	8	9	10	11	12	13
정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주요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교육(급식·교복·학습준비물) 법제화 순천대 의대 유치 광양만권 도시통합 원 도심 활성화구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 작물 수매제도 실시 정원박람회 부지 국제수준 테마파크 조성 태양광 산업단지 유치 특목고 유치·유아교육진흥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천대 의대 유치 광양만권 통합 추진 남도 문예회관 유치 순천 정원박람회 국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50만 글로벌 도시 육성 순천대 의대 유치 일본 기업유치 통한 Japan타운 건설 노령화 세대 생산활동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 인구의 전남중심도시 설계 순천교육 혁신 기반 조성 건강·장수촌 특화 개발 양질의 일자리 기업유치와 고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국제적 산업체 유치 광양만권 통합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남도청 제2청사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천 정원박람회 예산 확보 국회의원 세비 순천시에 기부 광양만권 통합 기틀 마련 순천대 의대 유치 및 육성

김선동 “순천대 의대 유치 하겠다”

허상만 “10대작물 수매제 실시”

조순용 “남도문예회관 유치 추진”

허신행 “50만 글로벌 도시 육성”

박상철 “100만 그랜드 순천 만들것”

구희승 “전남도청 제2청사 유치할 것”

김경재 “신대지구 글로벌 타운 조성”

관을 순천으로 유치해 순천 문화부흥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허신행 후보는 '50만 글로벌 도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나섰다. 허 후보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외국으로 기업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자부품업체를 광양만권에 유치해 순천을 50만 글로벌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인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재팬타운(일본촌) 건설 공약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박상철 후보는 순천을 100만 인구의 전남 중심도시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광양만권 통합을 비롯한 인근 시·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100만 인구의 그랜드 순천을 만들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중 눈에 띄는 것은 건강·장수촌 특화개발이다. 순천만의 청정 이미지와 생태건강도시라는 점을 강조해 귀향·귀농·귀촌자를 위한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박 후보는 지역과 상관없는 군대 내 처우개선과 전쟁 걱정없는 나라만들기도 약속했다.

구희승 후보는 순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인 '순천 경제 포럼'을 구축하고, 순천 신대·선월지구의 국제 교육도시 조기 건설 및 국제적인 산

업체 유치(Global Town)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공약했다. 순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전남도청 제2청사 유치와 순천대 의과대학 재추진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개선으로 보육 책임의 공공화를 실현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을 약속했다. 다문화가정 체계적 지원제도 개선과 지방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도 구 후보의 공약중 하나다.

무소속 김경재 후보는 매달 1억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순천시 교육과 사회복지 사업 발전을 위해 모두 기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3선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순천정원박람회 부족 예산 102억을 확보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특히 신대지구에 '통역고등학교'를 개설하고 글로벌 타운을 조성하는 '교육 명품 도시' 건설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Reliable Partner
고역과 함께 Win-Win하는 일을 수 있는 파트너

59
광주일보
1952-2011

Reliable Partner

앞서 걷기 보단 함께 걸으며 내일을 열어갑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Beyond Your Dream
한화케미칼

■ 화순군수 재선거 후보

이름(나이)	홍이식(52)	백남수(48)	최만원(45)	임호경(59)
기호	2	5	7	8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
주요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개 일자리 창출 뉴타운·한방건강타운 조성 지역특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연 300만명 관광객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적 실시 무상급식·무상교복 학습준비물 무상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무상실시 나름값 7만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예산, 전문기 집단에 위임 복지 서비서 매개로 육성 화순-광주 야간셔틀버스 운행 관광 코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거주자 주거비용 절감 일미산 체육문화공원 조성 구도심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 65세 이상 복지 쿠폰 제공

너도 나도 “잘 사는 화순 만들겠다”

■ 화순군수 후보 공약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은 대부분 복지정책과 함께 '잘 사는 화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홍이식 후보와 무소속 임호경 후보의 공약, 진보정당 두 후보의 공약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선두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홍 후보와 임 후보는 화순발전을 위한 님은 듯 다른 공약을 내놓았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은 큰 틀에서는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실현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홍이식 후보는 1500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퇴직자 창업 및 재취업 알선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취약한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화순군의 열악한 고용환경 때문이다.

홍 후보 측은 공약실현을 위해 기업체 유치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홍 후보는 또 화순에 한방 건강타운과 뉴타운 조성을 통한 정주거점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무소속 임호경 후보는 홍 후보가 내놓은 1500개 일자리의 2배인 3000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맞벌'을 놓고 있다.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신규기업 유치와 폐광 대체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홍이식 “한방건강타운·뉴타운 조성할 것”

백남수 “무상교육 실현 교육명문도시로”

최만원 “광주~화순 야간셔틀버스 운행”

임호경 “아파트 거주자 주거비용 지원”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임 후보는 또 구도심 정주여건 및 야간셔틀이 전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백남수 후보와 진보신당 최만원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들답게 각각 복지정책 등 진보적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백 후보는 우선 무상교육(친환경 급식·교복·학습 준비물)과 수확여행비 지원으로 화순을 교육 명문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노당이 내세우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무상실시, 노인 틀니·보청기 및 노인 배낭 지원, 공공요양 병원 실시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나라 값 7만원 보장과 농업용 트랙유류비 지원, 쌀 농업 직불제 실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농촌 공약도 내놓았다.

최 후보는 군수에게 집중된 인사와 예산 상정권을 전문가 집단에 위임하고, '열린 군정'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교육·의료·보육 부문 서비스 강화와 종합적 복지 대책을 마련해 화순군을 복지서비스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화순이 광주의 베드타운인 점을 감안해 광주와 화순 간 야간셔틀버스 운행과 읍·군, 화순-광주 간 버스노선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시스템의 공공성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이한 공약도 눈에 띈다. 임호경 후보는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화순 관내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화순군과 은행이 계약을 체결해 임대아파트 전 세대에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을 하고, 20세대 이상 아파트 공용건기료 전액 지원 및 관리비 일부 지원도 약속했다.

최만원 후보는 30평형 대 공공임대아파트 1000세대 확충과 저소득 계층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무이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들 공약은 시민들의 주거비용 절감이 주요 내용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백 후보의 공약 중에는 로컬 푸드 시스템(지역 먹거리) 구축이 있다. 생산은 농민이 전담하고, 유통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